

성소에 투신한 한달

카노아스 아파레시다 성모 관구



매년 브라질 교회에는 성소를 위한 달이 있습니다. 1981년, 19 번째 총회의 일부로써 브라질 주교회의(CNBB) 8 월을 성소를 위해 투신하는 달로 결정했습니다. 그 이래로 8 월 주말마다 교회는 교회를 건설해 가는 봉사의 다양한 성소 은사를 기리며 경축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 주일은 사제 성소를 조망하고, 둘째 주일은 가정 생활의 성소, 셋째 주일은 수도 성소를, 넷째 주일은 평신도 성소를 그 중심으로 합니다. 8 월이 5 주일 경우, 다섯 번째 주일은 교리 사도직에 집중합니다.

올해는 아파레시다 성모 관구의 성소 활성화 센터가 성소를 증진하려는 노력을 심화했습니다. 노틀담 공동체들도 이 노력에 함께 하도록 고무되었습니다. 각 공동체는 다양한 활동을 장려하고 그에 참여했습니다. 이들 중에는 경축, 성소 체험 나눔, 라디오 프로그램, 생중계, 워크숍, 성소를 주제로 하는 모임 등이 있었습니다.

더우기 각 주말에는 다른 여러 수녀들과 노틀담 공동체가 특별 생중계 발표를 진행했습니다. 8 월 14 일, 본원 공동체 수녀들은 레칸토 아파레시다의 노인 수녀들과 멋진 모임을 마련했습니다. 3 시에는 식당에서 이 두 공동체 수녀들을 위해 맛있고 흥겨운 오후 다과가 준비 되었습니다. 동시에 이 모임의 기쁨과 특별함에 성소 관련 축일 노래가 더해졌습니다.

8 월 16 일, 수도 생활에 할애된 주간에는 본원 수녀들이 직원들과 모여 수녀들의 삶에 대한 정보를 나누었습니다. 직원들이 수도 생활에 대한 의심을 표현하거나 호기심을 채운 비격식적 대화 후에는 성소 기도 예식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. 모임의 마무리에는 직원들이 감사와 수도 생활의 날에 대한 축하의 표시로써 바니아 마리아 수녀와 셸리 마리아 수녀에게 화초를 선물했습니다.